간이역,

근현대사의 상처와 낭만을 잇다

교통의 발달과 함께 제 역할을 잃고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간이역. 분명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 잊을 수 없는 고향의 풍경이며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였고 소박하고 특별한 정취를 품은 풍경이었던 곳. 그러나 사실 간이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자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던 시기, 해방 이후 경제 발전,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간이역들을 따라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밟아본다.

참고 「익산 구 춘포역사」 보존·활용 종합정비계획
사진 익산시 공식 블로그, 익산시청, 보령시청
글 편집실

역사와 추억 속으로 떠나는 간이역

간이역은 역무원 하나 없이 기차가 잠시 정차했다 떠나는 작은 역이다. 기차가 잠시 멈춰 선 사이 짐을 들고 내리거나 어디론가 다시 떠나는 사람들만이 이 작은 역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세월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며 우리 곁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 간이역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철도역 사이에 새로운 역들이 생기거나 철로의 복선화, 역사의 현대화 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간이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 하나둘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한 간이역들의 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에서 지나간 아픔들과 추억의 흔적들을 조용히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는 우리 근현대사, 특히 경제와 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철도의 출입구이며 철도를 따라 전달되는 문화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간이역이었다. 철도를 통해 단순히 사람과 물자들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예술까지 다양한 것들이 오고 갔으며 간이역은 그 창구로서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그 모든 역사적 장면들을 지켜보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하고 현대화 되면서 점차 잊혀져가는 듯 했으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전국 간이역 65곳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3개의 간이역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그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의 흔적, 춘포역

등록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된 춘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驛舍)를 가지고 있으며 1914년 역사 업무를 시작했다. 첫 이름은 역이 소재해 있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오오바역(대장역/大場驛, おおばえき)이었고, 해방 후 오오바역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대장역으로 불렸다. 하지만 마을 이름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농업이민 과정에서 생긴 일본인 마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1996년 6월 1일 춘포역으로 역명을 변경하게 된다. 이후 인근 국도의 확장과 전라선 복선화로 인한 고가철로 가설로 2007년 여객취급 중단, 2011년 폐역이 되었다. 춘포역은 출입구 쪽의 캐노피와 돌출되어 있는 직교형 박공지붕 등이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역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받고 있어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의 쌀을 군산으로 실어 나르거나 물자가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현재는 원래 사용하던 철로가 철거되고 승강장 시설들도 모두 사라진 채 옛 역사 건물만 남아있다. 인근에 있는 춘포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구마모토 출신의 호소카와라는 일본인이 춘포 지역의 넓은 곡창지대의 토지를 매수해 농장을 만들었고 관리 사무소와 사택, 도정공장 등을 건립한 흔적인 농장 가옥과 도정공장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이 지역을 넓은 땅이라 하여 대장촌이라고 불렸던 것이 춘포역의 옛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위)춘포역 과거 전경 (아래)춘포역 현재 전경

> 66
> 춘포역은 출입구 쪽의 캐노피와 돌출되어 있는 직교형 박공지붕 등이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역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받고 있어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가 크다.
> 99

호소카와 농장가옥

춘포역사 내부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청소역 전경

청소역 앞 공원 포토존

여전히 현역인 작고 아름다운 청소역

장항선에 유일하게 남겨진 간이역이자 등록문화재 제305호인 청소역은 아직도 하루에 8번 기차가 정차하고 20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본래 장항선은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에 의하여 충남선(忠南線)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청소역은 1929년, 인근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진죽역이라는 이름의 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1946년 5월 국유화되었고, 1958년 9월에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이후 1961년 현재의 모습인 단층구조의 벽돌조 건축으로 지어졌으며 1988년 현재의 역명인 청소역이 되었다. 청소역은 맞이방과 역무실, 부속실이 나란히 배치된 옛 간이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장항선의 역사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근대 간이역사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역이 있는 청소면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촬영지였던 청소면사무소가 있으며 중심지에는 옛날식 다방과 같은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하다. 시간을 잘 맞춘다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 80년대 TV 속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청소역 내부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며 주요 지방 도시들을 연결하여 지방 교통의 중심이 되어 온 간이역. 지금은 비록 하루에 스무 명 남짓 되는 승객들만 오고 가는 작은 역이거나 폐역이 되어 쓸쓸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라도 간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가 찾아주길 기다리며 지난 시간들과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앉은 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이다.

간이역 추천 도서

한국의 간이역 : 건축기행, 새롭게 보는 문화재 간이역 – 수탈과 낭만의 변주곡 사이에서
임석재 저 | 2009년 | 인물과사상사

'건축기행, 새롭게 보는 문화재 간이역–수탈과 낭만의 변주곡 사이에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간이역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건축 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간이역이 일제 수탈을 위해 지어졌지만 해방 이후,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낭만의 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일본 건축 양식과 함께 숨어 있는 한국의 정서와 한국적인 조형 처리들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이역의 건축 스타일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 차이도 읽어낸다. 단순히 건축물인 간이역에서 시작해 건축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내고 다양한 사회학적 의미들까지 찾아내는 재미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늘, 간이역에서 : 스물 한 개의 간이역을 찾아가 그리고 느끼다
박성진 저 | 2020년 | 책숲

저자가 간이역을 찾아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로 엮었다. 특히 이제는 역할을 다했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억에서 잊혀가는 간이역이 품고 있는 추억과 풍경, 감상, 정취를 담아냈다. 저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여행지의 풍경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과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쓴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추억이 되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썼다고 한다. 스스로를 '사라져가는 추억을 담는 드로잉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간이역들의 모습을 사진 찍듯 현장에서 스케치하고 채색해 담아내어 사진과는 또 다른, 한 편의 추억이자 작품이 될 수 있는 책이다.